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0, pp.43-78  
<https://doi.org/10.29212/mh.2021..120.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냉전 구상과 한미관계의 구성\*

이동원\*\*

1. 머리말
2.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의 배경
3. 사절단 활동과 밴 플리트 중도 귀환의 의미
4. 밴 플리트 보고서와 한미 동맹관계의 구성
5. 맺음말

## 1. 머리말

6·25전쟁 휴전 이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동아시아 냉전 전략과 군사원조 규모를 재검토하기 위해 1954년 4월 밴 플리트(James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2019)의 제2장 제1절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A. Van Fleet) 전(前) 미 제8군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원조 특별사절단을 동아시아에 파견했다. 이렇게 탄생한 일명 ‘밴 플리트 사절단(the Van Fleet Mission)’은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고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는 이때 제출된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를 중심으로 6·25전쟁 휴전과 한미군사동맹 체결, 인도차이나반도 문제의 부상으로 점차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던 동아시아에 대한 당시 미국의 냉전 구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밴 플리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미 육사 동기로 전역 이후에도 아이젠하워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특별사절단 단장을 맡았다. 밴 플리트를 군사원조특별사절단장에 임명한 것은 물론 미국의 필요에 부합했기 때문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밴 플리트는 6·25전쟁기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이승만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밴 플리트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맥아더와 유사하게 ‘아시아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냈고, 이 때문에 밴 플리트 사절단의 보고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관계 형성 과정과 그 상호적 성격을 이해하는 역사적 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밴 플리트 장군이 전역 이후 한국의 군사원조 문제와 한국군 증강에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휴전 이후 한미합의의사록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공약(公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사를 바탕으로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 및 예비보고서 등 관련 문서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문서와 미 국무부 간행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등을 활용하여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대 동아시아 정책, 대한정책의 전체적인 맥락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를 직접 다룬 국내 연구는 조성훈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구성 배경과 인적 구성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낸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미국의 독도 인식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외에서도 폴 F. 브레임의 전기와 같이 밴 플리트 개인의 일대기를 정리한 전기류 연구가 많지만, 한미관계의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 집중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sup>3)</sup> 국내 연구에서는 광경상, 권혁은, 이동원 등의 연구가 한국의 울산 정유공장 및 울산 공업단지 건설, 제주 송당 목장 건설 등에서 밴 플리트가 민간투자 중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나 한국군 증강 등 군사원조와 관련한 그의 역할을 분석하지는 못했다.<sup>4)</sup>

따라서 본 연구는 6·25전쟁 휴전 이후 한국군 증강 논의 과정에서 밴 플리트의 역할을 이해하고, 미국과 한국, 아이젠하워와 이승만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던 그의 독특한 위상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2) 조성훈, 2009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46.

3) 폴 F. 브레임 지음, 육군교육사령부 자료지원처 번역실 옮김. 2002 『승리의 신념 : 밴 플리트 장군 일대기』 봉명

4) 광경상, 2016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개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 계획」,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권혁은, 2017 「5.16 군사정부가 미 대원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습의 역할 - 초기 울산공업단지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5; 이동원, 2018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동」, 『역사비평』 125.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내용과 한미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의 배경

6·25전쟁 휴전 이후 한국 정부는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음에도 곧바로 미국에 군사력의 대폭적인 증강을 요구했다. 손원일 국방부장관은 윌슨(Charles Erwin Wilson) 국방부장관에게 20개 사단의 조기 증강, 한국군의 전투능력 강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두 차례나 보냈고, 이승만 대통령도 11월 5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군 증강 제안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sup>5)</sup> 1954년 초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한국군 20개 사단 창설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추가 요구를 이어갔다. 백두진 국무총리는 스티븐스(Robert T. Stevens) 육군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20개 사단에 더해 15개 내지 20개 사단의 추가 증설을 요청했던 것이다.

선행 연구는 한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주도 하에 군사력 증강을 요구했던 배경으로 북진통일을 위한 단독공격 행동의 필요성, 단독행동 위협을 통한 대미교섭력 강화 시도, 일본 재군비 동향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의 재군비 동향을 우려하며 “한일 양국의 군사력의 균형을 맞춘 증강”을 요구했다고 보았다.<sup>6)</sup> 그러나 당시 한국 측 관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국군 증강 요구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군 철수 이후를

5) “한국군 증강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서한”(1953.12.23.),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I』 대통령기록관, 2012, 92~93쪽.

6) 李鍾元,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大學出版會, pp.78~80.

대비하기 위한 군사원조의 확대 기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sup>7)</sup>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12월 26일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 육군을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해서 감축”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2개 사단을 철수시켰다.<sup>8)</sup> 그러자 이승만은 미국이 동의한다면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라오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통상전력으로서 한국군의 활용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한국군 증강의 당위성을 제기했다.<sup>9)</sup>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3년 11월 20일, 이전의 NSC 118/1, NSC 156/1을 대체하는 NSC 170/1, “한국에서 미국의 목표와 행동 방침(U.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에서 표방했듯이 “한국군을 국내 안보에 충분하고 강대국의 공격이 아닌 국지적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sup>10)</sup> 미 합참도 3월 31일 윌슨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을 통해 15~20개 사단을 추가 증설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과도하며 현행 20개 사단이 대한민국 정

7) 손원일 국방부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군사원조의 확대였다. 전쟁 중에는 우방군이 병력과 무기와 실탄을 가지고 와서 싸웠지만 그들이 물러간 후에는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은 우리 자신의 몫이었다. 국군의 장비가 원래 미약했지만 그간의 전투로 더욱 노후되었고 파손된 것들도 많았다. 군함의 부족은 물론 항공기도 신형 전투기도 없고 프로펠러기뿐이었다. 육군도 형편은 마찬가지로 탱크 한 대 없이 장갑차가 고작 일 중포도 없는 실정이었다.” (홍은혜 엮음, 1990, 『우리들은 이 바다 위해: 손원일 제독 회고록』 가인기획, 177쪽.)

8)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3.12.31.),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27.

9)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54.3.2.),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75.

10) 도널드 스티븐 맥도널드, 2001 『한미관계 20년사 (1945~1965년)』 한울 아카데미, 46~49쪽; “Report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05.

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25전쟁 휴전 이후 부상한 중국 문제와 인도차이나반도 문제에 대응하여 1954 회계연도의 전체 군사원조 총액 31억 8천만 달러 중 아시아 군사원조 비중을 1/3에 해당하는 10억 3,500만 달러 수준으로, 기존 10% 내외에서 크게 증가시킨 상태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 대한 비(非)군사원조도 1953 회계연도의 총액 대비 15% 수준에서 50.7%로 세 배 이상 증가해 유럽에 대한 비(非)군사원조 비중인 32.4%를 넘어섰다.<sup>12)</sup>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분배하고 동맹국의 통상전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미 군부의 방침을 정리한 것이 1954년 4월 9일 합동참모본부 비망록으로, 월슨 국방부장관은 이를 4월 10일 NSC 5416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했다.<sup>13)</sup>

NSC 5416, ‘극동 군사력 발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서 합참은 극동을 “하나의 전략적 실체(a strategic entity)”로 상정한 포괄적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극동의 비(非)공산국가들에게 주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소련이 아니라 중국의 공격적 자세와 증강되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비(非)공산국가들의 통상전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합사령부 지휘 하에서 통일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

11) “Memorandum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54.4.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84.

12)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34-136쪽.

13)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1954.4.10.),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150.

다.14) “미국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없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극동의 비(非)공산국가들 사이에 포괄적인 지역 안보협정의 체결, 즉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때 합참이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의 중심으로 중시했던 국가는 일본으로, “일본 군사력의 점진적 발전을 촉진”하여 극동의 집단방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집단방위에 대한 ‘잠재적 기여자(pro prospective contributors)’로서 한국과 대만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군사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합참의 인식은 군사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스타센(Harold E. Stassen) 상호안전본부장이 주장했던 “지역별 중심 강화를 고려한 새로운 상호안전보장계획(Mutual Security Program, MSP)”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자국 군대에 적절한 보급지원과 전략적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15)

이런 맥락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거나 미국이 군사원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전체의 판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우방국들에 군사원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방국 현지

14) 李鍾元, *ibid.*, pp.24~26.

15) NSC 5416에서 미 합참은 극동의 우방국가들의 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현재 극동지역 비(非)공산국가(미군을 제외한)들의 무장 병력은 육군 210만 명, 해군 11만1,000명, 공군 14만 3,000여 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이 현재 이들 국가들의 종합적 군사 능력의 진정한 지표는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전투부대라는 측면에서,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군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이 지역의 국가들은 그들의 군대에 적절한 물류 지원과 전략적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Lay)” (1954.4.10.),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150.)

군대의 강화와 함께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와도 직결되었고, 이는 결국 극동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 냉전전략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아이젠하워는 군사원조특별사절단 파견을 결심했고, 자신의 미 육사 동기이자 6·25전쟁기 미 제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를 단장으로 선택했다.

특히 이승만과 밴 플리트의 관계는 이승만과 맥아더의 관계 이상으로 특별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밴 플리트를 미국인 중 누구보다 신뢰했고, 개인 서신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매우 사적인 문제까지 논의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sup>16)</sup> 밴 플리트는 한국 부임 직후인 1951년 5월 ‘통천 상륙작전’을 입안하여 휴전회담 등의 정치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해결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쟁 중임에도 부산의 임시 수도를 서울로 환도(還都)하겠다는 이승만의 1952년 ‘3월 환도설’에 적극 동조했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한국 문제 해결을 시사하며 이승만에게 ‘특별한’ 신뢰를 얻고 ‘친한파(親韓派)’ 미국인의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sup>17)</sup>

이승만은 3월 22일 브릭스(Ellis O. Briggs) 주한미대사와의 면담에서도 미국의 6·25전쟁 제한전 정책을 비판하는 밴 플리트의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 기사에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sup>18)</sup> 1953년 3월 31일 전역한 밴 플리트는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미국의 전략”을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특히 육군부와 합참의 장교들이 회유와 타협을 포함하는 “제한전” 군사전략을 채택한 점에 불만을 표했다.<sup>19)</sup>

16)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2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I』 참고.

17) 이동원, 2019 『이승만 정권기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49~152쪽.

18)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3.22.), *FRUS*, 1952~1954, The Geneva Conference, Volume XVI, The Geneva Conference on Korea April 26~June 15, 1954, Document 28.

19) 폴 F. 브레임, 앞의 책, 426~427쪽.

결국 밴 플리트 사절단 문제는 1954년 4월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제193차 회의에서 레드포드 합참의장의 제안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병력 증강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행 20개 사단 규모가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합참의 3월 31일자 국방부장관 보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스미스(Walter B. Smith) 국무부차관이 지적했듯이 한국군 증강이 한국 정부의 제네바 회담 참석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드포드 합참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밴 플리트를 한국에 파견해 일정 기간 시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스미스 국무부차관도 이에 동의하며 밴 플리트가 시찰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닉슨(Richard Nixon) 부통령은 국무부의 표현을 빌어 밴 플리트가 “이승만에게 던져주는 뼈다귀(a bone to Rhee)”로 완벽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sup>20)</sup>

따라서 아이젠하워가 극동 군사원조특별사절단 단장으로 밴 플리트를 지목한 것은 1954년 4월 26일 시작된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회담에 반대하며 한국군 증강을 요구하는 이승만을 회유하고, 실제로 밴 플리트 사절단을 통해 극동의 군사원조 현실을 점검하는 정치적, 실용적 차원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극동의 지역적 안전보장체제의 실현을 타진하는 것이 이 시기 미국의 정책 목표였던 것이다.

20)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193d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uesday, April 13, 1954”, (1954.4.13.),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85.

### 3. 사절단 활동과 밴 플리트 중도 귀환의 의미

마셜 도서관(George C. Marshall Research Library)의 Van Fleet Papers를 활용한 밴 플리트 전기의 묘사에 따르면, 윌슨 국방부장관은 전역 후 사업가로 변신하여 바쁘게 지내던 밴 플리트에게 수많은 전화통화 끝에 사절단을 이끌겠다는 승낙을 얻었고, 4월 7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sup>21)</sup>

대통령께서는 밴 플리트 장군이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원조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사급에 해당하는 대통령 특사로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미국의 군사원조고문단이 있는 극동국가들을 방문할 것이며, 조사 결과는 국방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될 것입니다. 여행기간 동안 그는 극동사령관 헐(John E. Hull) 장군과 태평양사령관 스템프(Felix B. Stump) 제독, 그리고 그가 방문하는 나라의 대사 및 대표단과 그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협의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은 국방차관보 맥닐(Wilfred. J. McNeil)과 군인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참모진을 대동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과 그의 일행은 5월 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4월 26일 윌슨은 밴 플리트에게 서한을 보내 극동의 군사원조프로그램(Military Assistance Program, MAP)을 조사하는 사절단의 임무와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서 아이젠하워는 밴 플리트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승만과

---

21) 폴 F. 브레이, 위의 책, 432~433쪽; 이동원, 2018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동』, 『역사비평』 125, 124쪽.

그의 군사 고문들을 만나 협의할 것과,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과 협력하여 한국군의 장래 규모와 편성, 예비군에 대한 한미연합 계획의 실용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조사를 대만과 일본에서도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의 첫 번째 과제가 한국 문제, 즉 이승만의 제네바 회담 반대와 무리한 한국군 증강 요구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sup>22)</sup>

월슨의 서한에 따르면 사절단은 현지 군대의 규모, 구성, 장비, 훈련, 예비군,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해당 국가가 그런 군대를 부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했다. 따라서 사절단의 조사 범위는 해당 국가의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사실상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곧 군사, 경제, 기술 원조를 포괄하는 극동의 상호안전보장계획(MSP)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권고안은 1955~1957 회계연도를 포괄하는 비교적 장기적 전망을 담아야 했다.<sup>23)</sup>

국방차관보 맥닐(Wilfred. J. McNeil)은 재정 전문가로서, 월슨 국방부장관이 밴 플리트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맥닐은 상호안전보장계획(MSP) 분석을 도와줄 전문가들을 자신의 수하 중에서 선정했고, 밴 플리트는 이 팀을 승인했다. 각 군에서는

22) 밴 플리트 사절단 파견 당시인 1954년 4월~7월은 한미합의사록 체결 이전 시점이었지만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은 한미합의사록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군사원조를 비롯한 미국의 대한원조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원, 2018 「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역사와 현실』 107 참고.

23) 『From C. E. Wilson to James A. Van Fleet』,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조사단 대표들을 지명해 두었지만 선발은 전적으로 사절단장인 밴 플리트의 권한이었다. 그는 육해공군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그의 옛 친구이자 군사훈련 전문가인 왈츠(Welcome P. Waltz) 예비역 대령과 그의 사위인 맥코넬(Edward T. McConnell) 중령을 사절단에 포함시켰다. 밴 플리트는 팀을 보강하기 위해 제 90사단 근무 시절 휘하에서 작전 장교로 근무한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령을 선발해 사절단의 조정관으로 임명했고, 자신의 개인참모를 지냈던 슈메이커(Samuel E. Shoemaker) 중령과 매튜스(Lawrence G. Mathews) 소령이 스틸웰을 보좌하도록 했다.<sup>24)</sup>

국방부가 추천한 인물들은 맥닐 차관보를 필두로 대부분 재정 전문가들이었고, 6월에 합류한 워렌(William C. Warren) 박사도 1935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1952년부터 1970년까지 컬럼비아대 로스쿨 학장을 지냈지만, 1947~1949년 재무부 장관의 세무 자문(tax consultant), 1949~1950년 일본 재정 사절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sup>25)</sup> 이에 비해 밴 플리트가 추천한 인물들은 대부분 육군 출신의 군사훈련 및 전투훈련 전문가들이었다. 다음은 밴 플리트 사절단의 구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24) 폴 F. 브레임, 앞의 책, 434쪽. 이 책에 따르면 원래 국방부는 이 사절단의 책임자로 맥닐 차관보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러나 워싱턴의 '내부 관계자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밴 플리트 장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오랜 동기생이었던 그에게 행정부 자리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형식으로 밴 플리트를 조사단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보았다.

25) 『William C. Warren, Educator Philanthropist And Former Dean of Columbia Law School, Dies at 91』, 『Columbia University News』 Sept. 15, 2000.

<표 1> 벤 플리트 사절단의 구성<sup>26)</sup>

성명	직위·계급	기간	임무
벤 플리트 (James A. Van Fleet)	대사		단장
맥닐 차관보 (Wilfred J. McNeil)	재정 담당 국방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국방부장관 대리 MSP 재정 문제
워렌 박사 (William C. Warren)	컬럼비아대 로스쿨 학장	6.1~9.30	정책, 교육 문제 특별 자문
왓킨슨 박사 (Ralph J. Watkins)	Dun & Bradstreet 연구소장	4.26~9.30	정책, 정치-군사 분석 특별 자문
왈츠 대령 (Welcome P. Waltz)	육군 예비역 대령	4.30~7.13	군사훈련 및 군사학교 특별 자문
퍼거슨 준장 (James Ferguson)	공군 준장	4.26~7.5	공군참모총장 대리
드가브레 대령 (Chester B. DeGavre)	육군 대령	4.26~7.15	육군참모총장 대리
쥬리카 주니어 대령 (Stephen Jurika Jr.)	해군 대령	5.1~6.26	해군참모총장 대리
맥도날드 대령 (David McDonald)	해군 대령	6.27~7.13	해군참모총장 대리
홀컴(John Holcombe)	국방장관실 유럽담당 부감사관	4.26~7.1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코리(Joseph Corie)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로스(Irving Roth)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모리스 대령 (Howard A. Morris)	육군 대령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래러(Max Lehrer)		4.26~7.5	국방차관보실 재정 전문가

26) 『Composition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조성훈, 앞의 논문, 202쪽 참고.

성명	직위·계급	기간	임무
맥키니(Troy McKinney)		4.26~7.5	국방차관보실 제정 전문가
피치(John H. Fitch)		4.26~7.5	국방차관보실 제정 전문가
이튼 대령 (Dudley P. Eaton)	공군 대령	4.26~7.15	국방차관보실 제정 전문가
맥코넬 중령 (Edward T. McConnell)	육군 중령	4.26~7.15	전투 훈련, 군사학교, 현지군 구성(기갑부대)
슈메이커 중령 (Samuel E. Shoemaker)	육군 중령	4.26~9.30	사절단 부조정관
매투스 소령 (Lawrence G. Mathews)	육군 소령	6.1~7.25	전투 훈련, 군사학교, 현지군 구성(보병)
스틸웰 대령 (Richard G. Stilwell)	육군 대령	5.17~9.30	사절단 조정관

벤 플리트 사절단은 출발 전부터 한국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동아일보는 “벤 장군의 방아(訪亞) 사명”이라는 제하의 5월 2일자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벤 장군을 아(亞)주 동맹군을 훈련하는 지도자로 해달라고 한 대미요청이 화부(華府)에서 숙의될만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그리고 덜레스 장관의 동남아 동맹의 결성에 대한 적극적 의도가 발표된 뒤에” 사절단이 파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 한미 관계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 특유의 ‘정치 선전’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안주스[ANZUS]의 확대에 대하여 영불 양국은 수부(壽府)회의의 결과 여하를 안 뒤에 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뱌(派亞)하는 것은 수부회의의 실패를 예견한 이의 선후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동시에 수부회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대공 협박적 제스처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벤 플리트 사절단 파

견이 아시아 지역통합 및 공동 방위체 문제, 제네바 회담의 난항과 관련이 있다고 정확하게 추정했다.<sup>27)</sup>

밴 플리트 사절단은 4월 28일 미 공군 특별기편으로 워싱턴 D.C.를 출발해 5월 1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해 스템프(Felix B. Stump) 태평양사령관 및 주요 참모진과 회담을 가졌다. 5월 3일에는 호놀룰루를 떠나 5일 도쿄에 도착했고 헐(John E. Hull) 극동군사령관과 예비회담을 가졌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숙소를 배정받았다.

밴 플리트의 첫 임무는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대한(對韓)군사원조 소요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바로 다음날 사절단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으며 5월 11일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7일에 테일러 미 제8군 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밴 플리트는, 8일 제5공군 사령부에서 타일러 우드(C. Tyler Wood) 경제조정관의 보고를 받았다. 9일에는 손원일 국방부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회담을 갖고 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으며, 10일에는 광주에 보병학교를 점검했고, 11일에는 제2군단 지역을 시찰하고 제1군사령부를 방문했다.<sup>28)</sup> 6일 방한한 밴 플리트에 이어 7일 오후에는 미 예비군 사령관 렌 리차드 장군도 내한하여 9일 있었던 한국군 수뇌부와 회담에 참여하는 등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증강 문제를 논의했다.<sup>29)</sup>

27) 「밴 장군의 방아(訪亞) 사명」, 『동아일보』 1954.3.30. 1면.

28)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폴 F. 브레임, 앞의 책, 434~435쪽.

29) 「미 예비군 사령관도 내한」, 『동아일보』 1954.5.8. 1면; 「국군 증강책 속의」, 『경향신문』 1954.5.10. 1면.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5월 9일 회의에는 밴 플리트 특사, 테일러 미 제8군 사령관, 맥닐 국방차관보 등 사절단 일행 12명과 손원일 국방부장관, 이호 국방차관, 정일권, 박옥규, 최용덕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김석범 해병대사령관, 이형근 연합참모부장, 신태영 민병대 총사령관, 그리고 각 군 고위 작전참모 전원이 참석했다.

밴 플리트 사절단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컨트리팀(country team)의 보고를 받고 장개석 총통과 회담을 가졌으며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받는 등 대만에서도 군 수뇌부와 회담을 가졌다. 16일 다시 대구로 돌아온 밴 플리트는 17일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 사령관, 군사고문단(KMAG), 육군참모총장의 보고를 받았다. 18일에는 한국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진해의 육군과 해군 훈련 시설을 시찰했다.

19일 부산에서 도쿄로 향한 밴 플리트 사절단은 20~21일 일본 수상 및 외무상, 극동군 사령관 및 주요 참모진과 회담을 가졌고, 22일에는 오키나와를 방문했으며 주요 시설을 시찰한 뒤 다시 대만으로 향했다. 그리고 23~28일에는 대만의 군사 및 행정 기관, 컨트리팀 구성원들과 강도 높은 회담을 진행했다. 그 사이 밴 플리트는 홍콩을 방문해 인도차이나 군사원조사문단장(Chief of MAAG, Indochina)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sup>30)</sup>

밴 플리트 사절단이 약 한 달 동안 하와이를 거쳐 한국과 대만을 각 2회, 일본과 홍콩을 각 1회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력과 군사원조 검토 및 재조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인도차이나 반도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아시아의 군사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1)</sup>

30)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31) 『해공 전초전 치열』, 『동아일보』 1954.5.20. 1면; 『국공간 4차 공중전』, 『경향신문』 1954.5.21. 1면. 대만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대진(大陳)열도 북방 해상에서 치열한 해전이 있었고, 상해 남방 절강성 해안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다. 5월 18일 대만 언론은 1500톤 급의 중공군 구축한 1척을 격침시켰고, 또 한 척의 경(輕)구축함형 함정을 미확인 격침하였으며, 대진열도 북방 상공에서 중공군 미그기 한 대를 격파했다고 보도했다. (『월슨 장관 대만 도착, 장 총통과 2차 회담 예정』, 『동아일보』 1954.5.21. 1면.)

이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월 10일 덜레스 국무부장관, 윌슨 국방부장관, 레드포드 합참의장 및 고위급 외교·군사 고문들과 극비 회의를 가졌고, 윌슨 미 국방부장관도 5월 1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7일 브릭스 대사, 밴 플리트 특사, 헐 극동군사령관과 함께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부장관, 조정환 외무부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윌슨 장관은 18일 부산에서 밴 플리트 특사, 헐 극동군사령관, 손원일 국방부장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등과 다시 회담을 가졌고, 밴 플리트가 일본으로 향한 19일 대만으로 먼저 출발했다. 윌슨은 대만에서 중국 남부 해안과 남중국해 해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20일에는 장개석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러 갔던 뒤 장개석 총통 및 군 수뇌부와 회담을 가졌다.<sup>32)</sup>

윌슨 국방부장관과 밴 플리트 특사의 한국 및 대만 방문을 두고 한국 언론들은 이것이 한창 논의 중이던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와 유사한 한국과 대만의 방위동맹 결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 기사를 내기도 했다.<sup>33)</sup> 그러나 밴 플리트는 본인이 선발한 왈츠 대령과 스틸웰 대령을 대동한 채 5월 29일 돌연 워싱턴으로 귀환했다. 합동통신은 미확인 보도를 인용하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별 협의를 위해 그를 소환했다고 보도했는데, 밴 플리트 전기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상회담 요청 때문이었으며 이 회담에 밴 플리트가 참석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up>34)</sup>

32) 『동남아 긴박성 검토』, 『경향신문』 1954.5.12. 1면; 「윌슨 미 국방장관 동향 주목, 이 대통령과 요담」, 『동아일보』 1954.5.18. 1면; 「부산서 극비리 개최, 한미고위군사회담」, 『동아일보』 1954.5.20. 1면; 「윌슨 장관 대만 도착, 장 총통과 2차 회담 예정」, 『동아일보』 1954.5.21. 1면.

33) 「한, 중 방위동맹 타진, 장(蔣)·밴 3차 회담서 추구?」, 『동아일보』 1954.5.17. 1면; 「한, 중 방위동맹 추진? 밴·장(蔣) 3차 회담이 주목」, 『경향신문』 1954.5.17. 1면.

34) 「밴 장군 돌연 귀국」, 『경향신문』 1954.5.31. 1면; 폴 F. 브레임, 앞의 책, 436~437쪽.

그러나 실제 이승만과 아이젠하워의 정상회담은 7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밴 플리트도 6월 2~7일 워싱턴에서 머물며 레드포드 합참의장, 윌슨 국방부장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6월 13~15일 다시 내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네 번째 회담을 가졌다. 밴 플리트는 6월 16~21일 일본을 방문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6월 22~23일 진해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다섯 번째 회담을, 24~26일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마지막 회담을 가졌다. 이후 6월 28일~7월 3일 대만, 7월 6~7일 필리핀을 방문한 사절단은 9~12일 하와이에 들러 스텐프 태평양사령관과 확대회의를 가진 뒤 7월 15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sup>35)</sup>

따라서 5월 말 밴 플리트의 갑작스러운 ‘중도 귀환’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첫 번째 가능성은 5월 10일 브릭스 주한미대사가 덜레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밴 플리트가 첫 번째 방한 기간 중인 5월 9일 손원일 국방부장관 등 한국군 수뇌부와 회담을 가진 바로 다음 날 작성된 것이다. 이 전문에서 브릭스 대사는 밴 플리트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국방부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면, 미군 철수에 비례하여 한국군 전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는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구체적 수치를 제공해야 하는 미 제8군 실무진들과 정반대 방향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브릭스는 밴 플리트가 미군 1개 사단 철수 시 같은 비용으로 대략 한국군 5개 사단을 창설할 수 있으며 35개 사단까지 증강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희망에 협조해야 한다고 믿고

35)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있지만, 미 제8군과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고 특히 타일러 우드는 한국군 증강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브릭스는 밴 플리트가 더 많은 원조를 약속하는 것은 이승만에게 양측 입장을 싸움 붙여 이득을 취하고, 추가 원조를 기대하며 제네바 회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밴 플리트가 솔직하고 협조적이며 진실한 사람이지만, 세부적인 재정적 판단, 극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미국의 전반적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36)</sup> 밴 플리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의 정책과 다른 잘못된 신호를 주고 오히려 그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현지 대사의 날선 비판은 덜레스 국무부장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일종의 위기감을 제공했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5월 하순 제기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수정 요구였다.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제네바 정치회담 논의를 위한 미 국무부 특사로 방한한 딘(Arthur H. Dean)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승만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에 차별적인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승만은 미 국무부가 조약 비준안을 교환하고 공포할 준비를 마쳤다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보고를 받고 그 중 두 가지 사안을 수정하고자 했는데, 하나는 미일안보조약과 유사한 파기조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북쪽에서 몰아내는 한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포함하는 ‘침략자 조항’이었다. 이승만은 5월 29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일안보조약이 제공하는 수준의 안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36)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5.10.),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0.

딘에게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sup>37)</sup>

여기서 이승만이 지적한 파기조항이란 1952년 미일안보조약의 4조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미일안보조약을 대신할 안전보장 조치가 발효되고 미국과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었다.<sup>38)</sup> 또한 ‘침략자 조항’은 결국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작전을 미국이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은 딘과의 논의 단계에서 이미 무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딘 특사는 조약의 개정에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미 비준 단계에 있는 조약의 수정을 시도할 경우 비준이 연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덜레스 국무부장관이 ‘침략자 조항’은 물론이고 파기 조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실제로 덜레스는 브릭스 대사에게 보낸 5월 27일자 전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조항은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의 경우와 같이 일방에 의한 파기가 가능하지만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의 승인 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침략자 조항’과 관련해서도 미일안보조약이 미국에 의무를 부가하지 않고 일본에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조약은 일본에 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이 병력을 활용하

3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5.2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6.2.),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7.

38) 1952년 미일안보조약 4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은 유엔 또는 기타에 의한 일본 구역에 관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충분히 정석이 되는 유엔의 조치 혹은 이를 대신할 개별적 혹은 집단적 안전보장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고 일본 및 미합중국이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 진창수·김철수 옮김 2006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549~551쪽.)

며 일본이 미국 이외의 제3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임을 상기시켰다. 덜레스는 이 내용을 이승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고 브릭스 대사는 6월 3일 서신을 통해 덜레스의 입장을 이승만에게 전달했다.<sup>39)</sup>

이승만은 덜레스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받고 특별한 이견을 표명하지 않은 채 한국 문제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는 형식적인 언사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수정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다. 따라서 이승만이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하며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내용을 오해했다기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문제조차 한국군 증강과 군사원조 확대를 이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문제는 한국군의 지휘, 혹은 작전통제 문제였다. 덜레스 국무부장관은 6월 4일 브릭스 대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이 이루어졌던 1953년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그 성명서에는 “지금부터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3월 말경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덜레스는 이 성명서에 “합의된 정치회담 기간에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을 통일하려는 독자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 역시 정치회담이 종료되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와

3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5.2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5;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954.6.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8.

할 유엔군사령관도 5월 20일 경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와 함께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두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을 재확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sup>40)</sup>

이런 맥락에서 밴 플리트의 5월 29일 귀환은 이승만 정부의 한국군 증강과 군사원조 확대 주장에 기울고 있던 그에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도록 하고, 이승만과 한국군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밴 플리트는 6월 2일 워싱턴에 도착해 레드포드 합참의장과 회담을 가졌고 6월 3일에는 월슨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한 뒤 상원 군사 및 대외관계위원회(Senate Armed Forces and Foreign Relations Committees)에 출석하여 약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다시 하와이와 일본을 거쳐 6월 13일 한국에 도착했다.<sup>41)</sup>

#### 4. 밴 플리트 보고서와 한미 동맹관계의 구성

밴 플리트 사절단의 예비 보고서는 밴 플리트가 한국을 두 차례 방문한 이후인 6월 3일 제출되었다. 밴 플리트는 예비보고서에서 기존 수준에서 40% 증강된 100만 명 규모의 한국군 보유를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료들 사이의 오해

---

40)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5.27.),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5;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1954.6.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899.

41) 『Itinerary of Mission』,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가 양측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문서화된 협정을 부인한다고 불평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합의한 공약(公約)에 부응하지 못해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관료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 정책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국익보다는 국가 위신을 앞세우면서” 미국의 도움을 거부한다고 느끼는데 비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과 국내 신용까지 세세히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외세의 개입”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sup>42)</sup>

한편 9월 30일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도 한국 육군을 3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권고안이 담겼다. 이는 기존 육군 64만 5,300명을 약 80만 명 수준까지 증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요구 수준과 유사한 것이었다.<sup>43)</sup> 밴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 보고서는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 4개국에 대한 개별적 군사 권고안을 포함하여 4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2매 분량의 결론으로 요약되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4)</sup>

42) 『Preliminary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June 3, 1954,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43) 『Report of the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Sep. 30, 1954, RG 341: Records of the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Entry 335: Air Force Plans Decimal File 1942-1954, Korea, Box 881.

44)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로버트슨은 1954년 10월 25일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의 결론 요약 부분을 더욱 간결하게 비망록으로 정리하여 덜레스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본고의 내용은 보고서 원문과 로버트슨의 비망록을 함께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Memorandum b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Robert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384.)

<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 결론 요약 (1954.9.30.) >

1. 동아시아 자유국가들(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하나로 묶고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2. 미국은 공산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다국적 조직(multi-national organization) 구성을 권장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3. 현지 군대의 장비, 훈련, 유지에 드는 비용은 같은 수의 미군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들은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전투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해 왔고, 따라서 이들 군대는 방위 목적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증강되어야 한다.
4. 아시아의 우방국과 적국 모두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분명한 선언이나 행동을 통해 침략을 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다만 군사적 목표물만을 겨냥할 것임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천명해야 한다.
5. 동아시아 우방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은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한다.
6. 태평양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사령부 구조는 전 지역을 통할하는 단일 미군 사령부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수행되는 미국의 모든 비(非)군사 활동도 NATO 체제에 비견될 수 있는 하나의 지역통합조직(unified regional organization)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이들 두 조직의 본부는 기획과 프로그램, 실행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7.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배치를 위해 비슷한 규모의 현지 군대를 증강하고 이를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 재배치된 미군은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유리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8.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의 권고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이 포함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국적 조직 구성을 주장함으로써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New Look), 즉 지역통합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 방위를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파병할 수 있는 수준의 현지 군대 증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적극적 천명을 주장함으로써 좀 더 공세적인 지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역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 특히 한일 간의 어업 및 청구권 분쟁과 일본-필리핀 간의 배상금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중재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직접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요구했고,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태평양 통합사령부의 창설과 군사 및 비(非)군사 활동의 합동 통제, 미 지상군의 재배치 등 동아시아에서 미 군사력의 강화와 군사 및 경제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촉구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마지막 조항을 통해 이승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밴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미국의 극동정책을 총괄한 NSC 5429 시리즈에 반영하고자 했다.<sup>45)</sup>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논의되었던 10월 28일 NSC 220차 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밴 플리트 사절단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밴 플리트가 더욱 적극적인 아시아 정책으로의 이행을 주장한 것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궤를 같이 했지만, 한국, 대만 등 현지 군대의 전력증강 요구 수준이 과도했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태평양 지역 미군의 통합사령부 체계를 제안하는 등 애초에 밴 플리트 사절단에게 기대했던 범주 이상의 내

4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Counselor of the Department of State (MacArthur)”,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369.

용이 결론과 권고사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sup>46)</sup>

벤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인 1954년 8월 20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NSC 5429/2를 통해 프랑스군의 디엔 비엔푸 전투 패배와 제네바 회담 이후의 대(對)극동 정책과 아시아 원조 규모를 이미 상당히 구체화했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일본과 필리핀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한국과 대만의 군사력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앤저스 조약(ANZUS Treaty)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 시기 미국의 극동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을 기존 20개 사단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무기 현대화 등의 수단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sup>47)</sup>

이 문서에 따르면 인도차이나에는 직접 군사지원(Direct Defense Support) 위주의 군사원조가 매년 약 11억 달러씩 총 22억 달러가, 공산중국을 방비하는 핵심 국가로 떠오른 한국, 일본, 대만에는 2년 총액 기준으로 약 9.1억 달러, 5.8억 달러, 4.3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는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등을 합산한 아시아 군사원조 총액을 약 42억 달러로 추산할 때 각각 52.4%, 21.7%, 13.8%,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도차이나와 한국, 일본, 대만에 아시아 군사원조의 대부분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이처럼 NSC에서 벤 플리트 사절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이미 아시아 군사원조의 윤곽을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46) "No. 364,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2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October 28, 1954", FRUS, 1952-1954, China and Japan, Volume XIV, Part 1, Document 364.

47) "Note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Lay)", FRUS, 1952-1954,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XII, Part 1, Document 312.

48) 이동원, 2020, 「1953~1955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상호안보장계획(MSP)과 대한(對韓) '평시(平時) 군사원조'의 재개」, 『사람』 74 참조.

크게 초과하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제안 정도를 제외하면 아이젠하워 행정부 전반의 공감을 얻기 힘들었다. 게다가 주한미군 중 지상군 2개 사단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밴 플리트 사절단의 권고안은 NSC 차원에서도 이미 3월부터 논의된 사안이었다.<sup>49)</sup>

그러나 한국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밴 플리트 사절단의 아시아 방문과 한국군을 30개 사단, 80만 명 수준까지 증강해야 하고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을 동반자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을 크게 고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밴 플리트와 이승만 대통령은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여섯 차례나 만나며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했고, 이는 최종보고서의 작성 시기에 진행되었던 한미간의 한미합의의사록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4년 7월 24일자 국무부 극동국의 파렐만-요스트 비망록에 따르면, 밴 플리트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맥스 레러는 국방부가 20개 사단 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드는 연간 원조 총액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를 상정했다. 이는 6·25전쟁 기간 중 한국군에 제공된 군용(軍用) 완제품(end-item) 원조인 MDAP 형식의 원조 추정치만 29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로 평가되었다. 레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위의 수치들까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승만은 이런 형식의 원조에 대해 현실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sup>50)</sup>

49) "No. 364,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2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October 28, 1954", FRUS, 1952-1954, China and Japan, Volume XIV, Part 1, Document 364.

50) "General - Program Status Reports - MDAP 1950-1951-1952 - 2",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Entry A1 1199: Records Relating to Economic Aid, 1948-1959, Box 2.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2\_44\_00C0020)

미국 군사원조의 ‘경제성’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해는 밴 플리트의 지지를 통해 더욱 힘을 얻었고,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이루어진 1954년 7월 26~30일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진통일’의 재천명과 이를 위한 병력 증강 요구로 표출되었다.<sup>51)</sup>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한국군에 대한 관심이 군사적 공격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님을 확신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sup>52)</sup> 한미합의의사록의 미국 측 초안에도 한국의 통일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은 모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국 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를 재확인했다.<sup>53)</sup>

그러자 이승만은 미국의 ‘평화 통일 고수’ 원칙에 불만을 표하며 실무진들 사이에 합의를 이룬 초안에 서명하지도 않은 채 7월 31일 돌연 귀국했다.<sup>54)</sup> 브릭스 대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귀국 후 “모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네 가지 대중운동을 이끌었다. 이 운동들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국에 대한 포기’로 선전했고, 미국에서 실무진이 여전히 협상 중이었던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불충분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으며, 타일러 우드 경제조정관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유엔한국재건단(UNKRA) 단장 쿨터(Coulter) 장

51) “Hagerty Diary, July 27, 195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23. 해거티(James C. Hagerty)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언론비서관으로 녹음과 기록을 위해 한미회담에 동석했다. 해거티에 의하면 아이젠하워는 회담 종료 후 어떻게 이승만이 한국에서 국지전 개시를 원할 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소규모 전쟁이 전면전으로 급속히 확대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52) “United States Summary Minutes of the Third Meeting of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Talks, July 29, 1954, 2:30 p.m.”,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25.

53) 백두진, 1975 『백두진 회고록』 대한공론사, 235~236쪽.

54) “United States Summary Minutes of the Fourth Meeting of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Talks, July 30, 1954, 3 p.m.”,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27; 백두진, 1975 『백두진 회고록』 대한공론사, 236~238쪽.

군이나 벤 플리트와 같은 ‘친한파’ 인물로 대체하고자 했다.<sup>55)</sup>

그러나 이승만 귀국 이후 50일 가까이 이루어진 실무진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미회담에서 7월 31일 도출된 합의사항의 큰 틀은 유지된 채로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확정되었고, 이는 9월 27일 이승만에게 정식 전달되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10월 1일 유엔군 대여금지급을 중지함으로써 양측 실무진 합의 내용에 불만을 드러냈다.<sup>56)</sup>

한국 정부의 유엔군 환화 대여 중지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0월 6일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덜레스 국무부 장관은 이승만이 점점 더 불합리하고 성미가 고약해지고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이르면 결국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윌슨 국방부 장관과 스타센(Harold Stassen) 대외활동본부장도 잠시 지켜볼 것에 동의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57)</sup>

결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유엔군 환화 대여 중지에 대응해 한국에 유류 출고를 중단함으로써 이른바 ‘유류 파동’을 일으켰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서 180 대 1 현행 환율에 의해 10월분 민수용 유류를 출고하도록 합의를 보았으나 직접 출고를 담당하는 한국후방관구사령부(KComZ) 유류장에서 이를 출고 중지하여 10월 중순부터 한국 내 유류가 고갈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석유 값은 두 배로 폭등했으며 선박용 중유는 품절 상태로 각 항구의 어선은 운행을 중지할 지경이었다.<sup>58)</sup>

55)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37.

56) “Editorial Note”,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48.

57)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16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ednesday, October 6, 1954”,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49.

58) 「한미 간의 타개책 시급, 국내 유류 고갈 상태에」, 『동아일보』, 1954.10.14. 2면.

한국 정부에게는 ‘유류 파동’에 대응할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유엔군사령부는 관리 하에 있던 수입 유류를 대한중유저장회사(KOSCO)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석유저장회사가 민수용 유류를 배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류 부족은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고 한국 민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sup>59)</sup> ‘유류 파동’ 이후 암시장 휘발유 가격은 5갤런 한 통에 200환에서 1,700환까지 폭등했고, 버스 운휴 등 교통마비 문제가 서울과 부산, 영남과 호남까지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여러 차례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승만 정부였지만 유류 고갈에 대해서만큼은 속수무책이었다.<sup>60)</sup> 결국 한국은 한미 합의를사록의 실무진 최종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고 11월 17일 이를 서울에서 정식 조인했다.

## 5. 맺음말

1954년 4월 26일, 극동의 군사원조프로그램(MAP)을 조사하는 사절단로서 구성된 밴 플리트 사절단은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방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수했다. 이 보고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지역통합전략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자국 방위를 넘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파병할 수 있는 수준의

59) 백두진, 앞의 책, 243~244쪽.

60) 『출하중지 이전보다 3.5배 양등 유류, 부산시내 교통은 완전 마비 상태』, 『동아일보』 1954.10.25. 2면; 『휘발유 암가격 날로 양등, 교통마비 위험성, 유류 동결로 각종 차량 반수 운휴』, 『경향신문』 1954.10.25. 2면; 『등장할 대연(代燃)장치, 무연탄 발생로 시험』, 『경향신문』 1954.10.30. 2면; 『경북 300대 버스 기름 없어 총 스톱』, 『경향신문』 1954.11.4. 2면; 『버스 총 스톱, 전남도 내의 교통상』, 『동아일보』 1954.11.10. 2면.

현지 군대 증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적극적 천명을 주장함으로써 더욱 공세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밴 플리트는 6·25전쟁기 미 제8군 사령관을 역임했고 이승만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면서도 ‘아시아주의자’이자 ‘친한파’로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자 했다. 따라서 밴 플리트는 한국 육군을 3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군 증강안을 제시했고,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 수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는 미국의 극동정책을 총괄한 NSC 5429 시리즈에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10월 28일 NSC 220차 회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밴 플리트의 권고안은 한국, 대만 등 현지 군대의 전력증강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태평양 지역 미군의 통합사령부 체계를 제안하는 등 애초에 사절단에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식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밴 플리트 사절단의 동아시아 구상은 좌절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밴 플리트의 보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크게 고무시켰고, 이는 비슷한 시기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협상 과제였던 한미합의 의사록의 체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군의 증강과 이를 뒷받침할 더 많은 원조, 한일 갈등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이승만의 일관된 주장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말 정상회담 시기부터 표면화된 한미 간의 갈등은 10월 1일 한국 정부의 유엔군 환화 대여 중지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유류 출고 중지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이르면 결국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는 덜레스 국무부장관의 예측대로 이승만은 미

국 측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에 합의했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고, 6·25전쟁 기간과 이후 한동안 미 국방부의 예산으로 제공되는 ‘전시(戰時) 군사원조’의 시대가 저물고 상호안전보장계획(MSP) 예산을 사용하는 ‘평시(平時) 군사원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미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1955회계연도에 총액 7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및 군사원조를 설정했고, 부록 A와 B를 통해 환율과 한국군의 규모 및 구성 등 원조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을 미 군부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사령관이 장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벤 플리트 사절단 파견부터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에 이르는 1954년 시기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구성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이승만-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갈등과 조율은 6·25전쟁 이후 새롭게 변화한 한미관계의 전형(典型)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국은 “반쯤은 노예이고 반쯤은 자유인(half slave and half free)” 상태라고 느꼈고, 미국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가 된 기분이었다.<sup>61)</sup> 이제 7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한미동맹은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묘하고 불안하게 출발한 것이었다.

(원고투고일 : 2021. 7. 16, 심사수정일 : 2021. 8. 17, 게재확정일 : 2021. 8. 25.)

주제어 : 벤 플리트 사절단, 이승만, 아이젠하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합의의사록

61) “The Ambassador in Korea (Briggs) to the Department of State”, FRUS, 1952-1954, Korea, Volume XV, Part 2, Document 958.

## <참고문헌>

### 1. 자료

미국 NARA RG 59, RG 330, RG 341 관련 자료

미 국무부, FRUS

『서울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8~37권, (이승만 관계 서한 문서)

『이승만 대통령 영문서한 번역집 I』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2

### 2. 단행본

폴 F.브레임 지음, 육군교육사령부 자료지원처 번역실 옮김. 2002 『승리의 신념 : 밴 플리트 장군 일대기』 붕명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 진창수·김철수 옮김,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6

남정옥, 『밴 플리트,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반자』, 백년동안, 2015

### 3. 논문

조성훈, 「1954년 밴 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46, 2009.8; 119-218,

<http://uci.or.kr/G704-000715.2009..46.009>

곽경상, 「해방 후 남한 석유시장의 개편과 울산 정유공장 건설 계획」, 『동방학지』 176, 2016.9; 153-183,

<http://doi.org/10.17788/dbhc.2016..176.006>

- 권혁은, 「5.16 군사정부기 미 대한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솜의 역할 - 초기 울산공업단지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5, 2017.9; 113-149,  
<http://doi.org/10.35865/YWH.2017.09.105.113>
- 이동원, 「이승만 정권기 한미합의사록의 체결과 개정」, 『역사와 현실』 107, 2018.3; 449-490,  
<http://doi.org/10.35865/YWH.2018.03.107.449>
- 이동원, 「'전쟁영웅'의 이면, 밴 플리트의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활동」, 『역사비평』 125, 2018.11; 123-153,  
<http://doi.org/10.38080/crh.2018.11.125.123>

(Abstract)

## The Design of Cold War Initiative for the region of East Asia and the Plan for Composition of Korea-U.S. Relations by the delegation of Van Fleet

Lee, Dong-won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Eisenhower sent a special military aid delegation to East Asia in April 1954 headed by former Eighth U.S. Army commander Van Fleet,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East Asian strategy and scale of military aid. Van Fleet delegation visited South Korea, Taiwan, Japan and the Philippines in turn and wrote a comprehensive report on East Asian policies cover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ssues as well as military aid and submitted it to President Eisenhower on September 30 at that year. Through the analysis of Van Fleet's report,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 understanding of the U.S. Cold War initiative in 1954 on East Asia, which was gradually gaining strategic value since the Korean War truce, the signing of the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he rise of the Indochina Peninsula.

Van Fleet served as the head of the special mission with Eisenhower's robust trust even after his discharge from the military. Van Fleet was very close to President Sungman Rhee based on his experience as commander of the Eighth U.S. Army during the Korean War. Thus, Van Fleet's appointment as the head of the special military aid mission was due to the need of the U.S. but also at the request of President Rhee. Van Fleet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but similarly expressed an "Asianist" aspect similar to MacArthur's, which led to a compromise between American interests and those of South Korea and other 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a historical case study that understand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Korea, and their mutual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be possible to see how General Van Fleet, who was called the "father of the Korean military," influenced the military aid issue and military enhancement in East Asia after his discharge.

Keywords : the Van Fleet Mission, Syngman Rhee, Dwight David Eisenhower,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greed Minutes